

고혈압·동맥경화 등 생활습관 질환 증가

노인진료비 지속 증가 전체진료비의 22.9% 건강보험 대상자 17%가 생활습관관련 질환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04년도 보험급여현황에 따르면 보험적용 진료비 가운데 암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반면, 감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점차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 생활습관 관련질환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2000년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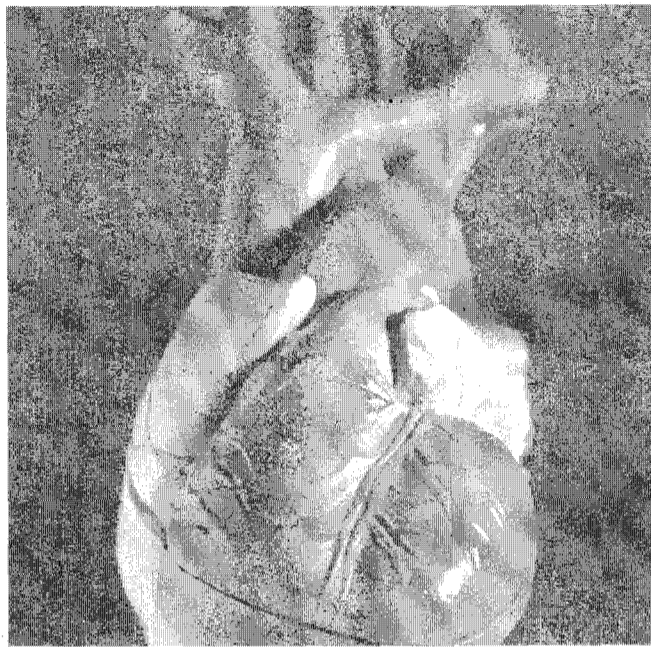
지난해 분야별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을 살펴본다.

◆ 건강보험재정 현황 = 2000년 당기수지 적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은 2001년부터는 누적수지까지 적자로 돌아 2002년 누적적자 2조5천억원에 이르렀었다. 그러나 국고지원 등 안정대책의 효과로 2003년부터 당기수지 흑자, 2004년에는 누적수지까지 흑자로 돌아서 건전재정을 회복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은 20조로 이가운데 보험료 수입이 14조8000억원, 국고보조금과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부담금을 합친 금액이 3조4000억원이었다.

건강보험 지원규모(급여비)는 16조 989억원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하는 등 2004년 건강보험 총진료비(비급여 제외, 보험자 부담+ 본인부담)은 22조3559억원으로 전년대비 8.9% 증가했다. 가입자 1인당 평균 진료일수도 14.8일로 2.8% 상승했다.

◆ 건강보험 총진료비 현황 = 총진료비는 비급여를 제외하고 보험적용 진료비중 보험자 부담(보험급여비)과 본인부담을 합한 금액을 뜻한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진료비 증가와 예방·조기치료를 중시하는 국민건강 의식 변화 등으로 병·의원 이용 횟수가 매년 늘어나 진료비 증가율이 2002년 7.0% → 2003년 7.7% → 2004년



8.9%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 질병별 진료비 = 감기(외래) 진료비는 2조 1550억원으로 전년 대비 3.21% 감소한 반면 암 진료비(입원)는 9124억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감기(외래)에 소요된 비용은 총 2조1550억원으로 암(입원)에 소요된 비용 총 9124억원의 2.3배였다. 복지부측은 암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급여비가 증가한 반면 경기 악화 등으로 감기환자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 65세이상 노인진료비 = 노인진료비는 5조1097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7374억, 16.9%가 늘었다. 이는 총진료비 증가율의 1.89배 수준이며, 2000년도 2조2893억원보다 123.2% 증가한 금액이다. 총 진료비 중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22.9%로 2000년도 17.4%에 비해 5.5%포인트 증

가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중 65세이상 노인인구 구성비가 7.9%인데 비해 진료비는 22.9%를 차지해 인구구성비에 비해 3배정도에 이르는 진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생활습관질환 =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 생활습관관련 질환 병·의원 이용이 크게 증가했다. 2004년도에 전체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17%인 800여만 명이 생활습관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아 진료비 1조8600억원(총진료비의 8.3%)이 지출됐다. 2003년과 비교해 진료비 12.4%, 환자수 6.3%, 진료일수는 9.5% 상승했다.

특히 50세 이상 노년층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생활습관 관련질환으로 치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가 50-64세 연령층보다 절대환자수는 적지만 증가추세는 더 높아 잘못된 생활습관의 개선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증가한 질환은 비만 29.0%, 고콜레스테롤 14.4%, 동맥경화증 11.9%, 고혈압 8.9% 순이었다.

◆ 약품비 = 5 전년 대비 약품비는 13.8% 증가했으며 검사·수술비 등은 10.4%가 증가했다. 진료비 중 4대 분류별 구성비는 검사 및 수술비(진료행위료)가

36.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약제비·진찰비등(기본진료료) 31.3%, 약품비 28.42% 그리고 재료대 등 3.68%순이었다.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약품비가 가장 높은 13.8%의 증가율을 보였다.

◆ 다빈도 상병 = 급성편도염등 감기관련 상병이 가장 많은 진료횟수를 보였다. 입원은 분만을 제외하면 치질, 노년백내장, 폐렴으로 인한 입원이 많았다. 특히 제왕절개 분만의 순위가 전년도에 비해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자연분만 비중이 증가했다.

◆ 기관 종별 진료비 = 2004년도의 경우 경기불황 등의 영향으로 의원진료비는 소폭(4.0%)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낮은 보건기관 진료비 증가율(9.2%)이 높았다. 약국(2만172개)이 6조1677억원 27.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의원(6조1110억원, 27.3%) 순이었다. 한편 일부 병원의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중소병원은 전반적으로 기관수가 증가(7.7%)하고 진료비 증가율(15.1%)도 크게 나타났다.

◆ 전문과목별 (의원급) 진료비 = 연간 진료비 1위는 안과, 2위는 정형외과, 3위는 신경외과로, 상위 3개 진료과목은 2003년과 비교할 때 순위는 바뀌었으나 큰 차이가 없었다. 하위 3개 과목은 병리과, 성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로, 성형외과는 비급여 행위가 많기 때문이며, 병리과 및 진단검사의학과는 의원급으로 개설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고액급여환자 현황 = 2002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에서 10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본 환자 수는 9만5319명이다. 이 중 급여비가 1억원 이상인 환자도 42명에 달했다.

창간 25주년



원	장	박재갑
연	소	신해림
부	속	이승훈
부	속	배재문
부	속	정국면
사	무	서상곤
교	육	김홍태

「成人病」신문 창간 25주년을 축하합니다